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11.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獨 검찰, 모스크 테러 모의한 자국민 11명 기소**
 - 11.12 독일 검찰은 지난 2월 자국내에서 이슬람 사원(모스크)을 습격해 무슬림을 살해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려다 체포된 자국민 11명을 테러음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
- **유럽연합(EU), 국경 보안·온라인 극단주의 통제 강화 합의**
 - 11.14 EU 27개 회원국 관계 장관들은 지난 13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경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
- **네덜란드, 사우디 대사관 총격 '테러'로 추정**
 - 11.16 네덜란드 검찰은 자국 주재 사우디 대사관 건물에 총격(11.12)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(40세, 남)에게 테러 의도가 있었으며, 同人은 이전에도 해당 건물 외관을 훼손한 적이 있었다고 발표
- **유라시아 검찰총장, 초국가 범죄의 형사공조 강화 합의**
 - 11.16 러시아, 중국, 인도 등 유라시아 검찰총장들은 테러와 범죄자금 추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,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정세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형사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

미주

- **美,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 지체에 따른 테러 위협 우려**
 - 11.11 CNN은 「트럼프」대통령의 大選 불복과 백악관 등 정부기관 인수인계 금지 지시로 「바이든」 당선인 측의 정권인수가 늦어지고 있으며, 이는 테러 등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

○ **美, '19년 중요범죄 살인 피해자 역대 최다**

- 11.16 美 연방수사국(FBI)은 '19년 한 해 동안 7,314건*의 중요범죄가 발생해 최근 10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특히 중요범죄 살인 피해자는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

* 인종(55.8%) > 종교(21.4%) > 성적 지향(sexual orientation, 16.8%) 順

아 · 태평양

○ **일본, 불법드론 격추용 '레이저 장비' 개발 추진**

- 11.16 닛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드론테러 등에 대비해 고출력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안티드론 레이저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, 내년 예산에 44억엔(약 465억원)의 연구비를 요청했다고 보도

중동

○ **이스라엘, 알카에다 2인자 「알마스리」 사살**

- 11.13 NYT는 알카에다 2인자이자 '98년 아프리카 케냐 주재 美 대사관 폭탄테러(사망 224)를 주도한 「무함마드 알마스리」가 지난 8.7 이스라엘 공작원에 의해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

○ **이라크, 테러 혐의 수감자 21명 사형 집행**

- 11.16 AFP통신은 이라크 정부가 나시리야 교도소에 테러 혐의로 수감중이던 ISIS 조직원 21명의 교수형을 집행했으며, '17년 자국에서 同 테러조직을 축출한 이후 수백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**아프리카 테러조직, '佛 테러 지지' 등 선동 활동**

- 11.13 현지언론은 “알샤바브와 알카에다 마그렙지부(AQIM)가 최근 발생한 프랑스 테러를 지지하고 유사공격을 선동하고 있다”고 보도

'14년 나이지리아 고등학교 자살폭탄테러

- '14.11.10 오전 나이지리아 북동부 포트스쿰市 소재 서구식 교육을 제공해 오던 국립고등학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48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부상
 - 현장에 있던 교사는 “월요일 수업에 앞서 조회를 위해 학생들이 모이던 중 교복 차림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무릎을 꿇고 폭탄을 터뜨렸다”고 진술
-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없었지만, 그간 ‘보코하람’이 서구식 교육방식의 학교를 공격해온 전례*로 보아 同 테러단체 소행으로 추정
 - * '14.4 여중에서 학생 276명 납치, “서구식 교육은 최악이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”고 주장
- 테러현장에 모인 학부모와 주민들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군인들에게 최근 5년간 수천명을 살해하고 수십만명을 난민으로 만든 보코하람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항의

< 쉥겐 조약(Schengen Acquis) >

- 유럽연합(EU)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른 국가로 이동이 가능하며,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세관 신고도 미 실시
 - * '85년 독일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남부 쉥겐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선언한 데에서 유래,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現在 26개국 가입
-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목적 외에도 가입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국의 경찰들이 쉥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범죄자, 행방불명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수사의 국경적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고 평가